

신라의 멸망과 朴氏王家

전 기 응*

<차 례>

1. 머리말
 2. 박씨왕가의 성립과 신덕왕
 3. 박씨왕가기 정치사회의 양상
 4. 박씨왕가와 신라의 멸망
 5. 맺음말
-

1. 머리말

신라말 왕경 지배층의 정치사회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박씨왕가의 등장이다.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물왕 이후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였으나 10세기에 들어서면서 912년부터 927년까지 15년 동안 3명의 박씨왕이 나타난다. 신덕왕과 경명왕 경애왕이 그들이다. 박씨왕이 다시 등장하는 10세기 전반은 지방사회의 분열과 이반으로 신라는 분열과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에 해당한다. 견훤과 궁예가 각기 국가를 건설하여 후삼국시대가 열리고 신라는 양국의 각축전에서 쟁탈의 대상이 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왕실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신라는 박씨왕가기를 지나며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으며 경애왕의 살해는 실질적인 신라의 멸망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신라가 몰락한 배경과 이유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먼저 직접적인 멸망의 계기가 된 박씨왕가기의 역사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요구된다.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금교수 (kwjeon2000@hanmail.net).

박씨왕실은 어떤 왕조이며, 그들이 이끌었던 신라말 정치사회의 전개양상은 어떠하였는가. 그들이 후백제와 고려의 위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취했던 조치들과 대응 형태는 무엇인가. 필자는 10세기 초 박씨왕가기의 지배층과 정치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정치사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박씨왕조의 몰락과 신라 멸망을 초래한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박씨왕가의 성립과 신덕왕

1) 박씨왕가에 대한 연구동향

내물왕 이래로 김씨왕으로 이어져 오던 신라왕실에서 박씨왕의 등장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종래 골품제의 원리에 입각한 왕위계승의 원리를 존중하는 입장에 따른다면 박씨왕의 존재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며, 갑작스런 박씨왕의 등장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일찍이 신라 하대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박씨왕실은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기도 하여 논란이 있었다. 신라 하대의 박씨왕가에 대한 검토는 먼저 골품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井上秀雄은 신덕왕이 본래 김씨이며, 당의 동성불혼제도를 받아들인 신라가 왕비나 왕모의 성씨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덕왕의 자매가 효공왕의 왕비가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하고, 또 후삼국의 항쟁기에 탈피를 꾀하여 박씨로 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 이에 대해서 李鍾恒은 “神德의 성이 박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며 박씨왕의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井上秀雄의 논지에 반대하였다.²⁾ 이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골품제와 왕위계승에 관련하여 박씨왕에 대한 논의는 池內宏 前間恭作 末松保和 등 일본 학자들과 李光奎 金穀圭 崔在錫 李鍾旭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³⁾ 文暻鉉은 골품제에 대해 검토하면서

1) 井上秀雄, 「新羅朴氏王系の 成立-骨品制의 再檢討」, 『朝鮮學報』 47, 1968.

2) 李鍾恒, 「新羅의 下代에 있어서의 王種의 絶滅에 대하여」, 『法史學研究』 2, 한국 법사학회, 1975.

박씨왕이 허구라는 입장에서 김씨왕족만이 진골왕족이며 이들은 족내 혼을 하였기 때문에 박씨왕비나 하대 박씨왕은 김씨라고 주장하였으며,⁴⁾ 최근 권덕영은 하대 박씨세력의 존재양태를 제시하고 박씨왕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살핀 후 박씨왕들은 고려에 이르러 왕조개창의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변조된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어서⁵⁾ 여전히 박씨왕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신라 하대의 정치사의 전개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박씨왕의 존재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역사 이론이나 사회학적 이론의 적용에서 벗어나 하대 정치사회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치밀하게 짚어나가는 일련의 연구들이 이기동 이배용 전기웅 신희철 김창겸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⁶⁾ 이기동은 다양한 사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치사의 전개과정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였으며, 이배용은 왕위계승 문제를 통하여 진성여왕대의 정치사회를, 전기웅은 경문왕가의 성격을 살피면서 박씨왕 등장의 정치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김창겸은 하대 왕실의 계보와 왕위계승의 형태를 다루면서 이미 골품제의 구축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희철은 견훤과의 관계에서 경애왕의 살해와 경순왕의 귀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고, 이를 이어 박씨왕을 표제로 내세운 조범환의 논문이 나오게 되었다.⁷⁾ 박

-
- 3) 前問恭作, 「新羅王의 世次와 其名에 대하여」, 『東洋學報』 15, 1925.
池內宏, 「新羅의 骨品制와 王統」, 『東洋學報』 28, 1941.
末松保和, 「新羅三代考」, 『新羅史의 諸問題』, 1954.
李光余,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1977.
金穀圭, 「韓國母系制 社會說에 대한 檢討」, 『韓國史研究』 23, 1979.
崔在錫,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歷史學報』 98, 1983.
李鍾旭, 「新羅時代의 眞骨」, 『東亞研究』 6, 1985.
 - 4) 文暉鉉, 「新羅 朴氏의 骨品에 대하여」, 『歷史教育論集』 13 · 14 합집, 1990.
 - 5) 권덕영, 「신라하대 박씨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 6) 李基東, 「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음문화사, 1985.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 釜山史學會, 1989.
申虎澈, 「新羅의 滅亡과 甄萱」, 『忠北史學』 2, 忠北史學會, 1989.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경인문화사, 2003.
 - 7) 崔凡煥,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의 性格」, 『歷史學報』 129, 역사학회,

씨왕의 혈통문제를 직접 주제로 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대말의 정치사 흐름과 신라의 멸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신덕왕의 즉위 배경과 박씨왕 시대의 전개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⁸⁾ 근래에는 역시 박씨왕대를 표제로 내세워 성립에서 몰락까지 전반적으로 폭넓게 다룬 이명식의 연구가 나왔다.⁹⁾ 그 밖에도 박씨왕가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정치사 관련 논문들은 일일이 언급하지 못할 만큼 풍부하다. 그동안 축적된 신라 하대 정치사회상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박씨왕의 등장 배경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2) 박씨왕실의 구성원에 대한 검토

박씨왕실은 어떠한 왕가인가? 그들은 누구이며 박씨 출신의 인물들이 어떻게 신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먼저 박씨 출신으로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른 신덕왕 경휘와 그 아들인 경명왕 승영, 경애왕 위웅을 비롯하여 박씨왕가를 구성하였던 인물들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¹⁰⁾

A-1. 神德王立 姓朴氏 諱景暉 阿達羅王遠孫 父父兼(一云銳謙) 事定康大王爲大阿湓 母貞和夫人 妃金氏 憲康大王之女(『三國史記』 권12, 神德王 즉위조)

A-2. 追尊考爲宣聖大王 母爲貞和太后 妃爲義成王后 立子昇英爲王太子(『三國史記』 권12, 神德王 원년 5월조)

1991.

8) 陰善赫, 「新羅 敬順王의 卽位와 高麗 歸附의 政治的 性格」, 『全南史學』 11, 전남사학회, 1997.

奎基雄, 「신라말 효공왕대의 정치사회 변동」, 『新羅文化』 2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李基東,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新羅文化』 2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權英五, 『新羅下代 政治變動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7.

9) 李明植, 「新羅末 朴氏王代의 展開와 沒落」, 『대구사학』 83, 대구사학회, 2006.

10) 하대 전반의 왕실 구성원 개보에 대한 분석과 기존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金昌謙, 앞의 책, 2003의 2장, 「王室系譜의 再構成」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사료 A-1과 A-2는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신덕왕에 대한 기록이다. A-1에 의하면 신덕왕은 朴氏로 이름은 景暉이며 아달라왕의 遠孫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혼돈의 여지가 있다. 즉 『三國史記』 권2, 벌휴이사금 즉위조에는 “阿達羅薨 無子 國人立之”라고 하여 아달라왕은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벌휴왕은 석씨이다. 여기에서의 無子와 國人的 추대는 왕성 교체의 조건이 된 셈이다. 그런데 아달라왕이 왕위를 계승할만한 아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달라왕이 속하였던 왕실 가족이 모두 절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아달라왕의 원손이라는 표현은 아달라왕이 속하였던 박씨왕실 가족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¹¹⁾ 다음으로 경휘의 아버지는 예검이라고 하였다. 그가 대아찬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정강왕대가 아니라 현강왕대임이 명확하다.¹²⁾ 이 부분은 정강과 현강이 혼동되어 일어난 오류라고 하겠다. 어머니는 貞和夫人이다. 정화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왕비 김씨는 현강왕의 딸이라고 하였다. 현강왕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장녀는 이미 효종과 혼인하였으므로 경휘는 차녀와 혼인한 것이다.¹³⁾

A-2는 신덕왕 즉위 후 왕실가족에 존호를 내린 기사이다. 아버지 예검을 선성대왕으로 추존하고, 어머니 정화부인을 정화태후로, 부인인 현강왕녀 김씨를 의성왕후로 봉하고, 아들 승영을 왕태자로 삼았다. 예검은 考, 追尊이라고 하였음을 보아 경휘의 즉위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만으로 보면 신덕왕의 계보는 간략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단지 경휘가 박씨 출신이라는 점만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와는 또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11) 아달라왕의 ‘無子’는 박씨왕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나 遠孫의 해석을 달리하면 해결될 일이다. 한편 모든 박씨들이 다 아달라왕의 후손을 칭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박씨 가운데에서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거나 왕손을 칭할 수 있었던 일족이 있었으며, 경휘는 그 일족에 속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12) 『三國史記』 권12, 憲康王 즉위조.

13) 奎基雄, 「眞聖女王代의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한국민족문화』 25,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23~24쪽.

A-3. a. 第五十三 神德王. 朴氏 名景徽 本名秀宗 b. 母貞和夫人
夫人之父順弘角干 追諡成虎大王 祖元弘角干 乃阿達羅王
之遠孫 c. 父文元伊干 追封興廉大王 祖文官海干 d. 義父
銳謙角干 追封宜成大王 e. 妃資成王后 一云懿成 又孝資
(『三國遺事』 권1, 王曆)

사료 A-3은 삼국유사 왕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a에서 신덕왕은 朴氏로 이름은 경휘이며 본명은 秀宗이라고 하였다. 수종은 흥덕왕의 본래 이름과 같아서¹⁴⁾ 삼국유사 찬자의 착오로 보기도 한다.¹⁵⁾ 그러나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으며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면 기사의 내용을 굳이 부정할 까닭도 없을 것이다. 기록에 따라 신덕왕은 원래 朴秀宗이었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경휘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¹⁶⁾

b에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없었던 신덕왕의 모계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신덕왕 경휘의 어머니인 정화부인은 順弘角干의 딸이며 조부는 元弘角干인데 그가 아달라왕의 원손이라고 하였으므로 경휘의 모계는 박씨가 된다. 즉 정화부인 또한 아달라왕의 후손을 칭하였던 박씨 일족인 것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정화부인이 義父 예겸의 부인인지 親父 문원의 부인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휘의 義母인지 生母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⁷⁾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 예겸과 정화부인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예겸과의 부부관계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14) 『三國史記』 권10, 興德王 즉위조.

15) 文暲鉉, 앞의 논문, 1990, 213쪽.

16) 경휘로의 개명은 예겸의 義子가 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7) 김창겸은 정화부인이 본래 문원의 처로 경휘를 낳은 후 예겸에게 改嫁하였으며 이에 예겸이 경휘의 繼父가 되었을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金昌謙, 『新羅下代 王位繼承 研究』, 경인문화사, 79쪽). 그렇다면 정화부인은 경휘의 생모가 된다. 이는 매우 개연성이 있는 추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가와 義父子 관계 성립의 상관성이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 없는데다가, 개가라는 설정이 좀 어색한 듯하여 일단 동의할 유보한다. 어느 쪽이건 경휘를 의자로 맞이하는 일에 정화부인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신덕왕 경휘는 자신의 친부인 문원을 흥림대왕으로, 의부인 예검을 선성대왕으로 각기 추봉하였으며, 나아가 정화부인의 아버지인 順弘角干에게도 威虎大王을 추시하였다. 외조부에게까지 대왕의 존호를 추시한 것은 이례적이라서 흥미롭다. 문원과 순흥은 박씨집단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신덕왕은 이들에게 베푼 예우는 매우 각별한 것이라 하겠다.

c에서 아버지는 文元伊干이며 조부는 文官海干이라고 하여 경휘의 부계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 문원이 興廉大王으로 추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부자관계는 인정해도 좋겠다. 이는 삼국사기에서 예검을 아버지라고 했던 것과 다르다. 그러나 d에서 예검은 경휘의 의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즉 경휘의 親父는 문원이며 예검은 義父인 것이다. 여기에서 경휘 친부계의 성씨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경휘가 박씨이며 아달라왕의 원손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들 친부계의 인물들 또한 당연히 박씨이다. 그러므로 정화부인과 경휘의 친부계인 문원, 문관 등은 같은 아달라왕의 원손인 박씨 일족에 해당한다.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휘가 예검의 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정화부인과 경휘가 같은 박씨 일족이라는 관계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c에서 헌강왕의 딸인 의성왕후는 資成, 懿成, 孝資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복잡한 여러 가지 이름을 칭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다. 왕비의 칭호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서 흥미로운데 간혹 혼동을 주기도 한다. 의성왕후는 효공왕 요의 이복누이이며, 효종의 부인으로 경순왕 김부의 어머니인 계아태후의 동생이다. 경명왕 승영과 경애왕 위웅 형제를 낳았다.

- B-1. 景明王立 諱昇英 神德王之太子 母義成王后(『三國史記』 권 12, 景明王 즉위조)
- B-2. 景明王 朴氏 名昇英 父神德 母資成 妃長沙宅 大尊角干 追封聖僖大王之子 大尊即水宗伊干之子 (『三國遺事』 권1, 王曆)
- B-3. 景哀王立 諱魏膺 景明王同母弟也(『三國史記』 권12, 景哀王 즉위조)

경명왕 승영은 신덕왕의 즉위와 함께 왕태자로 책봉되어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받았다. 삼국유사 왕력에는 경명왕의 왕비 長沙宅에 대한 계보가 나와 있다(B-2). 장사택은 35금입택의 하나이며 유력한 귀족가문에 해당한다. 장사택의 아버지인 大尊角干은 聖僖大王으로 추봉되었으며, 조부인 水宗伊干은 현안왕과도 가까운 인물로 武州 長沙縣의 副官을 지낸바 있다. 宅號의 유래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세력의 기반 또한 장사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¹⁸⁾ 경명왕 승영이 장사택과 혼인한 시기는 효공왕 말년 경으로 추정되는데,¹⁹⁾ 신덕왕은 아들인 승영과 유력한 귀족가인 장사택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서 그들과 결합하고 왕위계승에 대한 김씨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였겠다. 그런데 경명왕비는 그저 長沙宅이라고만 하여 왕비 혹은 부인의 尊號를 사용하지 않고 宅號만 기재된 것이 특이하다. 왕비로 추봉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존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까닭이 있었을 듯 하다.²⁰⁾ 경명왕의 즉위시(917년) 연령은 23세 정도이며, 924년까지 7년간 재위하였으므로 30세 무렵에 사망하였다.

경애왕 위웅은 경명왕의 즉위와 함께 이찬의 위계로 상대등으로 임명되고 있어서 일찍부터 정치에 깊이 간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년에는 金成이 상대등으로 임명되고 있어서 2년 2월 一吉飡 玄昇의 모반사건의 여파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왕제인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컸을 것이다. 경명왕대 활발한 외교의 전개에는 그의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친고려 반후백제의 외교정책은 경애왕의 즉위 후에 더 강화되었다. 재위시 연령은 20대 후반에 해당하는 연배이다. 왕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포석정에서 견훤에 의해

18) 李基東, 「新羅金入宅考」, 『震檀學報』 45, 1978.

19) 경위와 현강왕녀와의 혼인이 진성여왕 7년경에 이루어지고 다음 해(894) 승영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가 혼인연령인 15세경에 이르는 시기는 효공왕 13년(909)이 된다. 2-3년의 오차를 상정한다고 하여도 효공왕 말년 경에는 혼인이 성사되었을 것이다.

20) 혹 견훤의 왕경 침입 때에 해를 입은 탓으로 왕비의 존호를 쓰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경애왕의 경우 분명히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모두 빠져 있다. 견훤의 침입으로 욕을 당한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장사택이 왕비를 칭하지 못한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강제로 욕을 당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외에 妃妾들이 여럿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알 수 없다.

3) 신덕왕의 즉위 배경

신덕왕 경휘가 효공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강왕녀와 혼인함으로써 경문왕가 왕실의 일원이라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현강왕녀와 혼인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검의 의자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경휘는 독자적인 자기 세력기반이나 뚜렷이 들어나는 탁월한 업적도 갖지 못하였다. 경휘의 친부인 문원이나 박씨 일족이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유력한 진골귀족 출신인 화랑 효종이 효녀 지은을 구출한 일로 왕경인의 신망과 진성여왕의 기대를 받으며 현강왕녀와 혼인할 수 있었던 것에²¹⁾ 비하여 경휘는 왕경인의 신망을 얻을 만큼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경휘의 혼인은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정권을 장악한 예검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예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휘의 혼인은 진성여왕 후반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효종의 혼인이 여왕 3~5년경에 있었으므로 그보다 2,3년 지난 시기라면 대략 6~7년 무렵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예검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미 화랑 출신의 효종이 현강왕의 장녀와 혼인하여 왕위계승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검이 왕실을 장악하기 위하여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강왕의 차녀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이는 화랑세력과 경쟁하고 있었던 당시의 예검으로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²²⁾ 혼인을 시킬만한 親子가 없었던 예검은 의자인 경휘를 내세워 혼인을 성사시켰다. 예검이 자신의 친아들이 있었다면 굳이 의자로 혼인케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²³⁾ 어쩌면

21) 全基雄, 앞의 논문, 2005.

22) 신라하대의 화랑세력에 대해서는 全基雄, 「新羅 下代の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 합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4 및 曹凡煥, 「新羅末 花郎勢力과 王位繼承」, 『史學研究』 57집, 韓國史學會, 1999를 참고하기 바람.

23) 당시 예검에게는 훗날 효공왕비가 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는 10살이 채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경휘를 의자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본래 박씨 일족으로 문원의 아들이었던 경휘는, 예겸과 혼인한 정화부인 박씨와의 관계를 매개로 예겸의 의자가 되었으며, 왕실을 장악하려는 예겸세력에 의하여 헌강왕의 차녀와 혼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후 왕위에 오를 때까지 경휘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 오직 그의 의부인 예겸의 동향과 진성여왕 이후의 정치적 상황의 추이를 통하여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예겸은 헌강왕 즉위 시에 시중으로 임명되어 상대등 위홍과 함께 헌강왕 전반기의 국정을 이끌다가²⁴⁾ 6년에 敏恭으로 교체되어 시중에서 물러났는데²⁵⁾ 그의 퇴진은 위홍세력과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⁶⁾ 정치적으로 밀려나 있었던 그는 魏弘이 사망한 후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던 진성여왕 3년 이후 다시 정치사회에 복귀하고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정치적 장악력을 높여갔다. 여왕 3년의 전국적 반란과 왕거인 사건으로 표출된 여왕과 총신들에 대한 왕경인의 불만 등 왕경 내외의 정치적 위기는 예겸의 등장을 가져오는 배경이 되었다. 예겸은 여왕 7년경에는 이미 경휘의 혼인을 성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무렵 최치원이 외직에서 돌아와 당에 사행하고 있는 것 또한 예겸세력의 정치적 부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이후 성주, 지주제군사제와 같은 지방통치의 군사적 대응체제로의 변혁과 활발한 대당 외교의 전개, 진성여왕의 퇴위에서 효공왕을 거쳐 박씨 왕실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왕경내의 정치적 변화와 개혁은 예겸세력의 주도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경휘가 예겸의 지원으로 왕위계승의 후보자의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안 되는 연배에 해당한다.

24) 『三國史記』 권11, 憲康王 즉위조.

25) 『三國史記』 권11, 憲康王 6년 2월조.

26) 헌강왕대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全基雄, 「憲康王代の 정치사회와 ‘處容郎望海寺’條 설화」, 『新羅文化』 26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5.8.를 참고하기 바람.

27) 왕거인이 투옥되고 최치원이 외직으로 밀려가는 등 진성여왕 3년경에는 탄압과 견제를 당하였던 도당유학생 출신의 6두품 지식인은 이 무렵에 이르러 다시 정치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치원이 중앙정치로 복귀하여 대당 외교에 활약하며 시무10조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하였다.

진성여왕 이후의 왕위계승은 효종과 경휘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이 경쟁은 경휘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보다 우월한 지위는 장녀와 결혼하였던 효종에게 있었으며, 유력한 진골 귀족으로 화랑 출신인 효종에 비해 차녀와 혼인한 경휘는 서열상으로는 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효종에게 밀리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강왕의 서자인 曉가 등장하여 왕위에 오르게 된다. 민간에 머물고 있었던 요가 궁중으로 와서 태자의 책봉을 얻고 나아가 여왕의 선양을 받아 즉위한 것은 예겸 세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었다.²⁸⁾ 이로 인하여 효종의 왕위계승과 화랑세력의 대두는 저지되었다. 경휘 역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휘로서는 일단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쟁상대를 물리친 예겸은 요를 자신의 딸과 혼인케 하고 효공왕대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효공왕의 치세 동안 경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러나 그가 예겸세력의 구심점에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정치적 성장은 예겸 세력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²⁹⁾

효공왕 요와 신덕왕 경휘는 같은 예겸세력에 포함될 수 있다. 효공왕은 예겸의 사위이며, 경휘는 예겸의 의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예겸의 보호와 지원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서로 대결할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다. 효공왕대의 예겸세력으로 생각되는 계강이나 김성은 박씨왕실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예겸과 그 정치세력 집단은 진성여왕 이후 박씨왕가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이끌어 간 것이다. 그런데 효공왕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겸은 효공왕 말년에 이르러 사망하고 말았다. 이 무렵에는 준흥과 국가의 중요한 중신들이 대개 사망하였거나 은퇴하였다.³⁰⁾ 효종 또한 이후 어떠한 기록도 나타나지 않아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경휘는 경문왕가 왕실의 왕위계승 자격을 가진 유일

28) 이문기는 효공왕의 태자 책봉과 즉위를 추진한 주체로 진성여왕을 들고 있다. (李文基, 「新羅 孝恭王(曉)의 太子冊封과 王位繼承」, 『역사교육론집』 39집, 2007).

29) 예겸과 효공왕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서술은 전기웅, 「신라말 효공왕대의 정치사회 변동」, 『신라문화』 27, 2006을 참고하기 바람.

30) 특히 효공왕 12년에는 2월에 星孛宇東, 3월의 降霜, 4월의 雨雹 등 재난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무렵의 왕정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원로 중신들의 유고는 이 천재지변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한 인물로 남게 된다. 신덕왕 경휘의 즉위에 대해 김씨왕족이나 왕경인에게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겠다. 경휘는 효공왕이 죽고 후사가 없는 가운데 국민의 추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孝恭王薨 無子 爲國人推戴 卽位(『三國史記』 권12, 神德王 즉위조)

경휘를 추대하여 즉위케 한 세력은 바로 國人이었다. 일찍이 진성여왕과 왕실 측근을 비방하는 다라니의 隱語를 지어 유포하였던 자들도 국민이었다. 이 다라니 벽서사건은 이어 왕거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왕경인과 6두품의 반발을 가져오고 예겸세력의 대두를 가져와 진성여왕대의 정치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었다. 왕경의 국민들은 당시 진골귀족에 의해 정치적 진출이 제한된 6두품 지식인 계층, 권력의 중심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었던 朴氏勢力, 그리고 효공왕 요와 신덕왕 경휘를 비롯하여, 俊興 繼康 등의 인물들과 함께 예겸의 정치적 지지기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경휘가 예겸세력에 의지하여 왕위를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실력과 역량으로 새로운 왕실을 개창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박씨왕가의 성립은 새로운 왕조를 개설하는 창업과 같은 대변혁의 결과가 아니라, 예겸의 구도로 진행되어간 권력의 이행 과정에 참여하여 왕위를 얻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신덕왕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그는 경문왕가 왕실의 틀과 예겸세력이라는 정치적 구축을 벗어나 스스로 독립된 왕권을 영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박씨왕실의 표방은 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 경휘가 예겸의 의자가 되었으면 그의 성씨 또한 예겸을 따라 김씨를 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왕건의 賜姓에서 보듯이, 의부자관계의 성립은 같은 가족집단의 구성원으로 결합하는 것이므로 성씨를 같이 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또 그 편이 경휘의 정치적 활동이나 왕실과의 혼인, 왕위계승과 외교관계에 더 유리하였을 것이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휘와

31) 『舊五代史』, 『五代會要』, 『冊府元龜』 등 중국의 역사서에는 “新羅王 金朴英 遣使方物”이라고 하여 경명왕의 성명이 金朴英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혼란을 주

박씨왕들에 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은 예외 없이 박씨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인식은 후대까지 이어져 왔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박씨 출신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새로 등장한 왕실은 종래의 경문왕가 김씨왕실과 차별되는 새로운 왕통임을 표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³²⁾

이는 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신라에서 진덕여왕을 이어 즉위한 김춘추가 성골에서 진골로의 왕통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무열왕의 진골왕실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삼국의 통일을 이루었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박씨왕들은 김씨에서 박씨로의 이행이라는 왕통의 변화를 표방함으로써 위기의 극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³³⁾ 즉 박씨왕실은 후삼국의 분열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종교적 권위에 치우쳤던 경문왕가 왕실의 한계성을 벗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임을 내세우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씨왕들은 진골왕처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이 되지 못하였고, 7세기 신라의 성공은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

고 있다. 朴姓英에서 이름을 외자로 하여 英만 취하고 박씨성 앞에 김씨성을 덧붙인 형태이다. 이는 신라가 당과의 외교문서에 박씨성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김씨성을 덧붙여 사용한 까닭으로 보는 편이 좋겠다. 당과의 외교문서에서 왕명이 국내와 달리 쓰인 것은 흔히 발견되며, 종종 왕비의 성씨를 타성으로 기재한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한다. 당과의 외교문서가 전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외교적 목적이 사실보다 앞선 사례가 자주 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는 경휘가 김씨로 활동하는 편이 더 유리했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박씨를 유지하고 내세웠다면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2) 예겸세력은 경문왕가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개혁을 추구하였으므로 그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예겸의 지원에 의해 왕위에 오른 신덕왕이 즉위 후 자신의 독자적 왕권을 확보하려는 욕구, 고려와 후백제의 위협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등이 작용된 까닭이라고 하겠다.
- 33) 그렇다면 박씨 출신이라는 점이 강조된 것은 신덕왕의 즉위 시라기 보다는 그 후의 일, 아마도 다음 대인 경명왕의 즉위 무렵의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신라왕실이 적극적인 국난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경명왕 이후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승의 모반도 이런 동향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한편 신라의 왕경인들은 신덕왕이 본디 박씨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박씨왕실의 등장이란 사실에 대해 김씨 귀족들이나 왕경인은 거부나 반감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특별한 환영의 징조도 없다. 경애왕 사후 다시 김씨인 경순왕이 즉위하였을 때도 왕경인의 태도는 역시 그러하였다. 경명왕이나 경애왕과 마찬가지로 헌강왕의 외손이었던 경순왕의 즉위는 왕위계승권을 가진 자의 즉위 순서에 어긋나지 않았다.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왕경인들이 배척하거나 반발하지 않은 것은 이런 까닭이 아닐까. 신덕왕이 경문왕가 왕실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박씨 출신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왕경인들은 서자인 효공왕 요, 박씨인 신덕왕 경휘의 즉위, 견훤이 세운 경순왕 김부 등 신왕을 맞는데 적서자의 구별이나 성씨의 차이보다는 그들이 신라 왕실집단의 일원이었던 것만으로 용납될 수 있었다. 이는 골품제의 왕위계승 원칙이 이 시기에 와서는 더 이상 결정적인 규범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3. 박씨왕가기 정치사회의 양상

효공왕의 재위 말년에는 왕권이 추락하고 권위가 상실되어 있었다. 효공왕은 정사에 뜻을 잃고 있었고, 大臣 殷影은 왕이 자신의 충간을 듣지 않는다고 왕의 애첩을 마음대로 잡아 죽이는 실정이었다.³⁴⁾ 신덕왕의 즉위 후에도 취약해진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김씨왕실 계열 인물들의 협조가 요구되었으며 박씨왕가 세력과 김씨 귀족세력이 정치사회에서 나란히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박씨왕가기에 정치의 구심점에 있었던 인물들은 먼저 상대등으로 신덕왕대의 계강, 경명왕대의 왕제 위웅과 金成이 있으며, 시중으로는 경명왕대의 김유림과 언옹을 찾을 수 있다.

C-1. 立子昇英爲王太子 拜伊滄繼康爲上大等

34) 『三國史記』 권12, 孝恭王 15년조.

(『三國史記』 권12, 神德王 원년 5월)

C-2. 拜王弟伊滄魏膺爲上大等 大阿滄裕廉爲侍中

(『三國史記』 권12, 景明王 원년 8월)

C-3. 四天王寺塑像所執弓弦自絕 壁畫狗子有聲 若吠者 以上大等
金成爲角滄 侍中彦邕爲沙滄 我太祖移都松岳都

(『三國史記』 권12, 景明王 3년)

상대등 계강은 신덕왕 1년부터 경명왕 1년까지 6년간 재임하여 신덕왕대의 전 기간에 걸쳐 국정을 이끌었다. 경명왕의 즉위와 함께 후에 경애왕이 되는 王弟 위옹이 계강의 뒤를 이어 3년까지 2년간 재임하였는데, 현승의 모반 사건과 사천왕사의 변고를 겪고난 후에 金成으로 교체되었다. C-3에서의 임명기사는 문맥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즉 “以上大等金成爲角滄 侍中彦邕爲沙滄”은 “以角滄金成爲上大等 沙滄彦邕爲侍中”이 되어야 마땅하다.³⁵⁾ 김성은 효공왕 10년 파진찬의 위계로 준홍의 뒤를 이어 상대등이 되었다가 신덕왕의 즉위와 함께 물러난 인물이다. 김씨왕실 계열의 인물로 보이는 그가 왕제 위옹을 대신하여 상대등으로 임명된 것은 현승의 모반과 계속되는 변고를 겪으며 왕정내 구세력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김성을 마지막으로 상대등 임명 기사는 사라진다. 그 대신 國相이나 宰相과 같은 칭호가 보이는데 약화된 상대등체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한편 侍中은 경명왕대에 김부의 堂弟인 유림이 2년간 재위하였고 3년에 언옹으로 교체되었다. 이들의 관등은 각기 대아찬, 사찬으로 시중으로는 비교적 하위에 속한다. 상대등에 비하면 격차가 매우 커서 시중의 위상은 크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박씨왕가기의 상대등과 시중은 계강과 위옹이 박씨왕 계열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김성과 김유림은 김씨왕실 계열의 세력에 해당한다. 언옹은 다른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 없지만, 정국의 중심에는 양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인물로는 왕건을 왕경으로 불러들이려 하였다는 國相 金雄廉과, 건훤에 의해 후백제로 납치된 王弟 孝廉과 宰相 英景이 있

35) 삼국사기의 관직 임명기사는 예외 없이 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³⁶⁾ 여기서 효렴은 王弟라고만 하여 경애왕의 동생인지 경순왕의 동생인지 혼동이 되는데, 견훤이 신라 왕실을 견제하기 위해 인질로 데려간 인물이라면 신왕인 경순왕의 아우로 보는 것이 좋겠다. 재상 영경이 끌려간 것은 김웅렴과 마찬가지로 친고려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까닭일 것이다. 경순왕 김부의 당제인 유렴, 아우인 효렴. 그리고 김웅렴은 김부일가, 적어도 김씨왕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김웅렴은 왕건을 왕경으로 초대하려 하였고, 유렴은 후에 왕경을 방문한 왕건을 맞이하고 고려로 가서 양국의 통합을 준비하였으며, 김부의 아우인 효렴은 후백제에 납치되어 인질로 끌려간 인물이다. 이들은 후백제와 대립적인 입장에서 친고려정책을 수행한 사람들인 것이다. 김씨왕실 계열의 인물들은 여전히 국정을 이끄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박씨왕가기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경순왕의 부인인 竹房夫人은 朴氏로 3남 1녀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다.³⁷⁾ 그렇다면 김부일가와 박씨왕실은 혼인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후당과의 외교에 사신으로 활동하였던 倉部侍郎 金樂, 錄事參軍 金幼卿, 兵部侍郎 張芬, 兵部郎中 朴術洪, 倉部員外郎 李忠式 등은 직위로 보아 6두품 출신으로 생각되는데 도당유학생 출신 육두품은 최치원 이래로 신라의 대당 외교와 사행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박씨왕가기 정치사회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신덕왕은 왕위에 오른 후 왕실가족의 존호를 올리고 승영을 왕태자로 삼아 왕실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아울러 伊淪 繼康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계강은 효공왕 2년부터 4년간 시중을 지낸 바 있으며 경명왕의 즉위 후 위응에게 상대등을 넘겨줄 때까지 신덕왕대의 정치를 이끌었다.³⁸⁾

36) 『三國史記』 권50, 甄萱傳.

37) 「新羅敬順王殿碑」.

38) 繼康은 효공왕 2년 상대등으로 자리를 옮긴 준흥의 뒤를 이어 시중이 되었는데, 4년 후인 6년 무렵 대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효종세력의 대두로 교체되었다. 계강은 예겸세력과 연결된 인물로 효종세력과는 경쟁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계강은 신덕왕 즉위 후 곧 상대등이 된 것으로 보아 신덕왕을 도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왕위에 오르는데 공헌한 것은 아닐까 한다. 신덕왕대의 정국을 이끈 그는 경명왕 원년 8월에 이르러 王弟 魏膺에게 상대등의 직위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외에는 신덕왕의 재위기간 동안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기상의 이변과 궁궐 견훤의 동향만을 간략히 전하고 있을 뿐이다. 『三國史記』 권12, 신덕왕조의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년 4월에 서리가 오고 지진이 있었다.

3년 3월에 서리가 왔다. 泰封主 弓裔가 水德萬歲를 고쳐 政開 원년이라 하였다.

4년 4월에 槧浦의 물이 東海의 물과 서로 부딪쳐 물결의 높이가 20길 가량이나 되더니 3일 만에 그쳤다.

5년 8월에 後百濟主 甄萱가 大耶城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였다. 10월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6년 정월에 太白星이 달을 범하였다. 7월에 왕이 돌아가니 시호를 神德이라 하고 竹城에 장사하였다.

기후의 이변은 2년과 3년의 서리, 4년에는 서리와³⁹⁾ 해일이, 2년과 5년에는 지진이, 6년에는 太白犯月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발생하였다. 천재지변은 이미 진성여왕부터 꾸준하게 신라를 괴롭혀온 문제였다. 효녀 지은의 설화에서 왕경인의 경제적인 궁핍과 몰락을 짐작할 수 있으며 효공왕대 또한 극심한 재난에 시달렸다.⁴⁰⁾ 연이은 기후 이변과 궁핍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왕경은 국난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활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신덕왕은 왕경내 정치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光化 15년 임신에 奉聖寺 바깥문의 동서 21간에 까치가 깃들었다. 또 신덕왕 즉위 4년 을해에 靈廟寺 내 행랑에 까치집이 34개, 까마귀집이 40개가 있었다. 또 3월에 두 번 서리가 왔으

39) 『三國遺事』 권2, 孝恭王 조에서는 3월에 두 번 서리가 왔다고 하여 3년 동안 매해 봄마다 서리가 왔음을 알 수 있다.

40) 효공왕대의 재난은, 6년 2월에 降霜, 9년 3월의 星隕, 10년 4~5월의 不雨, 11년의 春夏無雨, 12년 2월 星孛宇東, 3월의 降霜, 4월의 雨雹, 15년 정월의 日蝕. 등 후반에 이르면 거의 해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며, 6월에 斬浦의 물이 바닷 물결과 3일 동안 서로 싸웠다.(『三國遺事』 권2, 孝恭王)

삼국유사 효공왕조를 통하여 신덕왕대의 분열된 왕정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효공왕대의 봉성사 외문 21간에 깃든 까치와, 신덕왕 4년 영묘사 행랑에 깃든 까치집 34개, 까마귀집 40개는 각기 정치세력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3월의 서리, 6월에 참포와 바닷물이 서로 싸웠다는 기사와 연결되고 있어서 세력집단 간의 대립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다. 까치와 까마귀가 각기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새로 부상하는 박씨왕실 계열과 그와 경쟁하였던 구 귀족세력을 상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까치와 까마귀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새이며 34개와 40개의 까치와 까마귀 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양 세력이 서로 비슷한 크기로 겨루고 있었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박씨왕가의 독자적인 출발은 경명왕대에 이르러서 가시화 된다. 박씨왕의 표방도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경명왕이 즉위한 다음해 일길찬 玄昇의 모반 복주 사건이 일어나는데,⁴¹⁾ 경명왕이 즉위한 후 바로 王弟 魏膺을 상대등으로 임명한 것은⁴²⁾ 박씨왕가의 왕통과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현승의 모반은 그후 6개월 만에 일어난 것이어서 경명왕 승영의 즉위에 따른 반발과 박씨왕가의 왕권 강화 의도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도 좋겠다. 현승의 모반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현승처럼 박씨왕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숙청되었거나 왕정을 떠났을 것이다. 경명왕은 물러나 있었던 김성을 불러들여 다시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왕제인 위웅을 대신하여 김성을 등용함으로써 김씨왕실 계열의 협조를 얻은 경명왕은 국내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에 주력하게 된다. 그 방향은 친고려 반후백제로 결정되었고, 국가적 위기의 극복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양세력이 협조하였다.

갈수록 강성해지는 궁예와 견훤은 신라 왕정의 외곽지역을 차지하고

41) 『三國史記』 권12, 景明王 2년 2월조.

42) 『三國史記』 권12, 景明王 원년 8월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신덕왕이 즉위할 무렵 공예의 영토는 溟洲 朔州 漢州 溟江道를 차지하고 후백제와는 熊州 運州 任存 牙州를, 신라와는 尙州를 차지하고 일신을 경계로 삼게 되었다. 신라의 영역은 경상도 일대로 축소되었고 대야성과 고을부까지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한편 견훤은 신덕왕 5년(916)에 두번째로 대야성 공략에 나섰으나 역시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다. 김부의 백부이며 효종의 형인 지대야군사 김억렴은 견훤의 공세를 다시 막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견훤은 대야성의 방어에 신라로의 진출이 가로막힌 채 왕건과 금성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양국의 잠식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던 신라는 경명왕이 즉위하면서 국제적 관계의 변화를 틈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경명왕대의 가장 커다란 사건은 공예의 몰락과 고려의 건국이었다. 신라는 경명왕 4년(920) 정월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와 수교하였는데,⁴³⁾ 이는 공예의 정권을 빼앗은 왕건의 왕위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를 일개 반란세력에서 독립된 국가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왕건은 신라의 접근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때 양국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은 듯하다. 양국의 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자극을 받은 견훤은 그해 10월 친히 1만의 대군을 이끌고 마침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구사를 점령한 후 전례성에 이르렀다. 그동안 견훤의 위협을 지켜내던 대야성의 함락으로 견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 신라는 아찬 김윤을 고려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고 왕건은 즉시 응하여 군사를 파견하였다. 다음 해 2월 달고적의 침입을 삭주의 고려 장군 견권으로 물리치게 한 것도⁴⁴⁾ 이러한 동맹관계의 확인이었다.

왕건이 신라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신라 왕실이 고려를 覇者로 인정하며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신라 변방의 지방세력들이 고려로 귀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경명왕 4년(920) 강주의 閔雄, 6년에는 하지성의 元逢, 명주의 順式, 진보성의 洪述, 7년에는 명지성의 城達, 경산부의 良文 등이 차례로 고려로 넘어갔던 것이다. 경명왕의 친고려 외교

43) 『三國史記』 권12, 景明王 4년 정월조.

44) 『三國史記』 권12, 景明王 5년 2월조.

정책은 위기에 처한 신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나, 한편으로 신라 외곽의 지방세력가들을 고려로 넘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경명왕의 친고려 외교는 고려의 보호를 얻어냄으로서 잠시나마 견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추구하게 되었고 전통적 우호관계인 후당에 사신의 파견이 재개되었다. 7년에는 倉部侍郎 金樂과 錄事參軍 金幼卿을 後唐에 보내어 方物을 전하였다. 김악의 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 고무된 신라정부는 다음 해인 8년 정월에 사신을 보내고, 연이어 6월에도 金岳을 다시 후당에 파견하였다.⁴⁵⁾ 한편 강주의 王逢規도 후당에 사신을 보내어 方物을 전하였는데, 이때 후당과의 왕래는 왕봉규의 도움을 얻어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왕봉규는 泉州節度使를 칭하고 있어서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 보이는데, 신라는 후당 외교에 협력한 그에게 權知康州事의 지위를 부여하였다.⁴⁶⁾

고려에 이은 후당과의 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8년 8월 경명왕이 죽고, 왕의 동모제인 경애왕 위응이 즉위하였다. 경애왕은 즉위하자마자 곧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경명왕의 죽음을 알렸으며, 왕전은 예를 갖추어 왕의 명복을 빌고 사신을 보내어 弔祭하였고⁴⁷⁾ 경애왕은 다음 달인 9월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답례하였다. 경명왕 사후에도 양국의 우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고려와 연합하여 후백제에 대항한다는 신라의 외교정책은 경애왕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경

45) 7년에 사행한 倉部侍郎 金樂과 8년 6월에 사행한 朝散大夫倉部侍郎 金岳은 동일한 인물이다. 朝散大夫의 직함이 추가된 것은 당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46) 경애왕 4년(927) 당 명종은 權知康州事 王逢規에게 회화대장군을 수여하였다. 이때 권지강주사는 신라정부로부터 얻은 직함이다. 그해 4월에는 지강주사로서 林彦을 후당 사신으로 파견하고 있다. 고려는 927년 강주 지역으로 진출하여 4월에 莢昌과 龍式이 轉伊山 등 4鄉을 항복시켰고, 8월에는 태조가 강주를 순행하였다. 왕봉규는 이로 인하여 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항복하였던 임언은 그후 고려의 사신으로 후당에 파견된다.

47) “9월에 신라 왕 旃英이 죽고 그 아우 魏牌이 왕위에 올랐다. 신라에서 국상을 알려왔으므로 왕이 애도하는 의례를 거행하고 齊를 베풀어 명복을 빌었으며 사절을 파견하여 그를 조문하였다.”(『高麗史』 권1,太祖 7년 9월조).

애왕은 고려의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려와 후백제가 서로 싸우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 해에는 조물성 전투 이후 수세에 몰려 견훤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던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어 “견훤은 이랬다저랬다 하여 거짓이 많으니 화친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고,⁴⁸⁾ 3년 4월에는 인질 진호의 사망으로 견훤이 웅진을 공격하였을 때 왕건은 싸움을 꺼려 성을 지키고 군사를 내지 않으니 왕은 사신을 보내어 “견훤이 맹세를 어기고 擧兵하니 하늘이 반드시 돕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대왕이 一鼓의 위세를 떨치면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며 견훤과 싸울 것을 종용하였다.⁴⁹⁾ 4년 정월 왕건이 백제의 龍州를 공격할 때에는 군사를 내어 도왔다. 3국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바라기보다는 양국의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경애왕의 태도는 마치 以夷制夷의 책략을 연상케 한다. 양국의 교전이 이루어지자 자신감을 얻은 경애왕은 4년 2월에 兵部侍郎 張芬과 副使 朴術洪, 判官 李忠武 등을 後唐에 보내는 등⁵⁰⁾ 중국과의 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경애왕의 활발한 외교정책은 경명왕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신라와의 우호를 기반으로 삼아 고려의 남진은 급격히 이루어졌다. 특히 경애왕 4년(927)에는 신라 외곽의 후백제 지역에 대한 고려의 공격이 격화되어 정월에는 태조가 친히 신라의 도움을 얻어 龍州를 공략하였고, 3월에는 運州에서 궁준을 격파하고, 近品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4월에는 해군장군 英昌, 能式 등이 수군으로 康州를 공격하였다. 이때 강주의 지주제군사였던 왕봉규가 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轉伊山, 老浦平, 西山, 突山 등 4개 鄉을 함락시켰다. 7월에 원보 在忠, 金樂 등이 大良城을 격파하고 장군 鄒許祖 등 30여 명을 포로로 하였다. 대야성은 후백제가 여러 차례 공격하여 겨우 얻었던 신라 공격의 요충지였으나 고려의 공격에 허망하게 넘겨주고 만 것이다. 8월에 태조는 康州를 순행하였다. 高思葛伊城 성주 興達은 왕이 자기 성을 지나는 기회를 타서 귀순하여 왔다. 이에 백제 여러 성의 성주들이 전부 투항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외곽지역은 상주, 함천, 진주, 남해에 이르기까

48) 『三國史記』 권12, 景哀王 2년 11월조.

49) 『三國史記』 권12, 景哀王 3년 4월조.

50) 『三國史記』 권12, 景哀王 4년 2월조.

지 고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신라를 둘러싼 생탈전에서 고려는 외교적이나 군사적이나 후백제를 압도하기에 이른 것이다.⁵¹⁾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견훤을 크게 자극하였다. 9월에 이르러 후백제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견훤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에 나서 고려에게 빼앗겼던 상주지역의 근품성을 공격하여 소각하고 나아가 신라의 高鬱府를 습격하고 왕경을 향해 육박하였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경애왕은 連式을 고려에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왕건은 시중 公萱, 대상 孫幸, 정조 聯珠 등에게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견훤은 이들이 채 도착하기 전에 왕경을 급습하였다.

신라왕은 왕비, 궁녀, 종실들과 함께 鮑石亭에 나가 연회를 차려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부인과 함께 달아나서 성 남쪽 별궁에 숨어 있었다. 시종한 신하들과 악공들과 궁녀들은 다 붙들렸다. 견훤은 군사들을 놓아서 약탈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들어앉아서 측근들로 하여금 왕을 찾아서 군사들 가운데서 협박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며 자기는 왕비를 강간하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궁녀들을 간음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라왕의 외종제 金傳를 왕으로 세우고 왕의 아우 孝廉과 재상 英景 등을 포로로 잡아 자녀들과 각종 장인들과 병기, 보배들을 모조리 약취하여 가지고 돌아갔다.(『高麗史』 권1,太祖 10년 9월조)

이 사건은 어렵게 지탱해 오던 신라의 지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견훤에 의해 국왕이 살해되고, 비빈들은 능욕을 당하는 등 폭력에 의해 전통적인 신라왕실의 권위는 실추되었다. 경애왕의 살해로 박씨왕실은 단절되었고 견훤이 효종의 아들인 金傳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신라왕실은 유지되었지만, 이후 신라는 尊王의 대상에서 小國을 칭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견훤의 신라 왕경 진입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51) 고려와 후백제의 신라 생탈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李明植, 「新羅末 朴氏王代の展開와 沒落」, 『대구사학』 83, 대구사학회, 2006, 52~61쪽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920년 대야성을 상실한 이후 신라 정부는 견훤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견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경을 유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때 견훤이 공격한 직접적인 이유는 신라 國相 金雄廉이 왕건을 불러들이려 했다는 것,⁵²⁾ 즉 신라가 고려와 동맹을 맺고 후백제를 견제하는데 대한 응징이라는 것이다. 견훤의 왕경 진입은 대단히 포악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가 자행한 국왕의 살해, 妃嬪에 대한 강간과 왕경의 약탈 행위는 매우 감정적이며 분노에 찬 행위로 보인다. 신라왕실에 대한 원한이 매우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견훤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신라는 고려를 국가로 인정하고 사신을 교류하며 패자로 애우하면서 동맹관계를 맺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후백제에게는 한 번의 사신도 보내지 않았다. 견훤을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애왕은 견훤을 폄하하며 거짓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하늘이 돕지 않는다면가 하면서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왕경에 진입한 견훤은 신라를 병합하여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김부를 왕으로 세우고 급히 물러났다.⁵³⁾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할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의 구원군이 육박해 오고 있었으며, 전통적 권위의 신라왕실을 짓밟고 난 후의 후유증이 염려되었을 것이다. 견훤이 왕건에게 서찰을 보내 자신의 행위를 극구 변명하였던 것도⁵⁴⁾ 지방세력들의 따가운 분노를 의식한 탓이다. 이 왕경 진입은 견훤의 가장 커다란 실책이었다. 이는 각지에서 전세를 관망하던 호족들이 고려에 귀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었다. 견훤이 고창 전투의 패배로 주춤해지자 왕경 외곽의 지

52) “지난날 신라 國相 金雄廉 등이 그대를 서울로 불러들이려 하였으니, 이것은 마치 자라가 큰 자라의 소리에 응하며 종달새가 새매의 날개를 부촉하려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사를 폐허로 만드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祖鞭을 잡고 韓鉞을 휘둘러...”(『三國史記』 권50, 견훤전).

53) 견훤이 경애왕을 죽이고 김부를 왕으로 세운 사실에 근거하여 김부세력과 박씨왕의 대립, 나아가 친후백제세력과 친고려세력의 존재를 상징하기도 한다(신호철, 조병환, 이명식의 앞의 논문 참고).

54) “그러나 뜻밖에도 奸臣은 달아나고 國君이 죽는 번을 당하였으므로 경명왕의 表弟이며 헌강왕의 外孫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도록 권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불들었으니, 임금을 잃었으나 새 임금이 선 것이다.”(『三國史記』 권50, 견훤전).

방세력은 일제히 고려로 귀부하였으며, 신라왕실 또한 고려에 귀부를 요청하였다.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왕경의 지배층은 멸망의 위기를 실감하고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 박씨왕가와 신라의 멸망

927년 견훤의 왕경 진입으로 경애왕이 살해당하고 敬順王 金傳가 즉위함으로써 신덕왕에서 경명왕 경애왕까지 삼대에 걸쳐 15년간을 이어온 박씨왕실은 불행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경문왕가 왕실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왕통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부의 적에 의하여 국왕은 살해당하고 왕실이 짓밟히고 왕경은 약탈당하였으며 박씨왕가는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써 신라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였다. 신라의 몰락이 진성여왕 3년의 전국적인 도적 봉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신라 멸망의 결정적인 사건은 경애왕의 살해와 박씨왕실의 단절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박씨왕가가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왕들이 실패한 까닭에 대한 고찰은 신라 멸망의 원인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⁵⁵⁾

1) 신라왕실의 권위와 왕권의 추락

신라말의 정치사회에서 나타나는 몰락의 징조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왕실 권위의 추락과 왕권의 상실이다. 경문왕과 헌강왕이 애써 추구하였던 왕권강화와 왕실의 권위는 진성여왕과 효공왕을 거치며 급격히 추락하였다. 魏弘에게 의지하여 왕위에 오른 여왕은 위홍이 죽자 몇몇 측근 충신들에게 국정을 위임하였고, 이들이 비난을 받게 되자 예겸에게 권력을 맡기는 등 스스로 정치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국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국정은 일부

55) 신라의 멸망 이유에 대한 모색은 각 분야의 다양한 각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치사적 관점에서 박씨왕실과 신라 지배층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고 총체적인 접근은 후고로 미루고자 한다.

정치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새로 부상한 예겸세력은 여왕에게 어린 曉를 불러들여 태자로 삼고 선양으로 왕위를 물려주게 하는 등 왕위의 계승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⁵⁶⁾ 효공왕 요의 왕권 또한 예겸세력에 의지하여 유지되었으며, 예겸의 죽음은 효공왕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정치사회의 공백을 초래하였다.

신덕왕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실추된 왕권의 회복과 왕실의 권위를 다시 되찾는 것이었다. 이때 박씨왕들은 경문왕가 왕실과 구별되는 새로운 왕실임을 표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왕경인은 박씨왕실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신뢰를 갖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새로운 왕실의 등장은 기존의 왕실 귀족세력들의 이탈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왕경의 귀족들은 뿔뿔히 흩어져 자신의 연고지인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고, 박씨왕실은 신라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왕경내 일부 정치집단이 되고 말았다. 왕경인을 규합하고 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국왕과 왕실이 외면당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신라의 저항마저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비록 쇠약해진 왕실이라고 하여도 지방사회에서 신라왕실의 전통적 권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동안 각 지방에서 자립한 수많은 지방세력가들 가운데에서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국왕을 칭할 수 있었던 것은 전횡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고구려뿐이었다. 그 밖의 지방세력은 삼국 가운데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지위를 강화하는데 가장 유리한 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세력간의 경쟁이 있었고 새로 부상한 지방세력이 왕실의 인정과 신라의 지위를 수여받는 것은 그 지방을 장악할 수 있는 권위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신라의 체제와 전통은 아직도 지방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방민들이 신라에 대한 충성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지방세력가에게 신라왕실의 인정과 지위가 필요한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城主, 知州諸軍事 등의 지방사회 개혁은 이러한 전통적 권위의 기반위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력해진 궁예와 전횡이 국가를 세우고 왕을 칭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56) 全基雄, 「신라말 효공왕대의 정치사회 변동」, 『신라문화』 27, 2006.

의 권위가 신라의 전통적 권위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느 쪽의 권위를 택하는지는 지방세력들의 선택에 맡겨졌으며, 그들은 세태와 세력의 흐름을 관망하며 자신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경명왕은 이제까지 적도로 규정하였던 고려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왕건을 또 하나의 국왕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신라왕실을 수호하고 지원하는 覇者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이는 신라왕실의 전통적 권위를 왕건의 새 국가에게 양도하는 것이었다. 이제 신라의 각 지방세력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고려에 귀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신라를 지지하였던 지방의 성주와 지주세군사들은 차례로 신라를 등지고 고려로 넘어갔다.

2) 외교정책의 한계

고려의 후원과 보호를 얻게 된 왕경은 일시적이나마 평온과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와의 밀착으로 일견 평온해 보이는 정세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가 전하는 경명왕대의 사회상은 음울하다.

貞明 5년 무인에 四天王寺 벽화의 개가 울므로 3일간 불경을 설하여 풀이하였는데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다시 울었다. 7년 경진 2월에는 皇龍寺塔의 그림자가 今毛 舍知의 집 뜰에서 一朔이나 거꾸로 서있었다. 또 10월에 四天王寺 五方神의 활줄이 모두 끊어지고 벽화의 개가 뜰로 달려 나왔다가 다시 벽으로 들어갔다.(『三國遺事』 권2, 景明王)

사천왕사와 황룡사구층탑은 모두 호국의 상징이다.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계속해서 울고 그림 밖으로 튀쳐 나온다던가, 오방신의 활줄이 모두 끊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호국의 영탑인 황룡사구층탑의 그림자가 거꾸로 서있었다는 것 또한 그렇다. 당시 왕경인들의 여론은 경명왕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신라왕실의 지나친 고려 편향은 삼국간 세력균형의 구도를 무너뜨

린 것이었다. 경명왕이 추구한 친고려 반후백제의 외교정책은 고려를 이용하여 후백제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한계와 위험을 안고 있었다. 삼국의 정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려와 신라 후백제가 서로 견제하고 대결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신라의 고려 의존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다. 비록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고려 의존적 외교정책은 경명왕의 가장 커다란 실책으로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신라 말에 이르러 국왕이 앞장서서 군사력을 모으고 왕경인들과 지방의 친신라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규합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 왕경은 현강왕대에 이미 17만호에 이르는 거대한 집단이었다. 이들이 결속하여 대응하였다면 신라의 멸망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씨왕들은 신라의 귀족들과 왕경인을 정신적으로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하여 호국의 전장으로 이끌 수 없었다. 비단 왕실뿐만이 아니라 왕경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날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앞장서 호국의 대열에 나섰던 불교의 지도자들은 지방 산문에 머물며 지방세력가의 비호에 만족하고 있었다. 귀족들은 신라의 왕경을 벗어나 자신의 연고지로 이주하였으며, 왕경인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결속하지 못하였다.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유흥을 즐긴 것이 아니라 護國神에게 제의를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그가 군사를 이끌고 전장의 일선에 서있었던 것도 아니다. 견훤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맞서 싸우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諸神의 가호를 빌어 국가를 보호하려고 들었다면, 현실적인 판단이 부족하였거나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당시 신라 왕경의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미 신라는 왕경을 지킬 군사력마저 갖지 못하였다. 왕경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김억림은 대야성에서 견훤군을 막아내었지만, 대야성이 함락당하면서 군사력 또한 상실되었다. 박씨왕들은 왕경과 국내에서 적군과 대결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한 채 외교적 책략을 통한 외부의 도움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천재지변과 왕경의 쇠퇴

이처럼 신라 왕경이 무기력하게 된 경제적인 원인으로서는 먼저 진성여왕 이래로 거듭된 자연 재해가 이 무렵에는 거의 매해 일어날 정도 극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진성여왕 무렵의 왕경은 효녀 지은의 예에서 보듯이 왕경의 하층민이 노비로 전락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왕경의 경제적 궁핍은 연이은 재난으로 더욱 심해졌다. 효공왕 후반에 이르면 6년 2월의 降霜, 9년 3월의 星隕, 10년 4~5월의 不雨, 11년의 春夏無雨, 12년 2월 星字宇東, 3월의 降霜, 4월의 雨雹, 15년 정월의 日蝕 등 거의 해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신덕왕 때는 더욱 극심하여 2년부터 4년까지 3년 동안 매해 봄마다 서리가 내렸고, 4년에는 해일이, 2년과 5년에는 지진이, 6년에는 금성이 달을 침범하는 이변을 비롯하여 재난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였다.

<표 1> 진성여왕 이후의 기상이변

서기	년도	내용	전거	참고
888	진성왕 2년 3월 戊戌朔	日有食之	삼국사기 권12, 당해년조	
888	진성왕 2년 5월	旱	상동	
890	진성왕 4년 정월	日暈五重	상동	
902	효공왕 6년 2월	降霜	상동	
905	효공왕 9년 3월	星隕	상동	
906	효공왕 10년 4~5월	不雨	상동	
907	효공왕 11년 春夏	無雨	상동	
908	효공왕 12년 2월	星字宇東	상동	
908	효공왕 12년 3월	降霜	상동	
908	효공왕 12년 4월	雨雹	상동	
911	효공왕 15년 정월	日蝕	상동	
913	신덕왕 2년 4월	隕霜 地震	상동	
914	신덕왕 3년 3월	隕霜	상동	
915	신덕왕 4년 3월	再降霜	삼국유사 권2, 효공왕	
915	신덕왕 4년 4월	槩浦水與東海水相擊 浪高二十丈許 三日而止	삼국사기 권12, 당해년조	유사에는 6월
916	신덕왕 5년 10월	地震 聲如雷	상동	
917	신덕왕 6년 정월	太白犯月	상동	
921	경명왕 5년 4월	京都大風拔樹	상동	
921	경명왕 5년 8월	蝗旱	상동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는 3,4월 봄철의 서리나 가뭄, 우박은 특히 효공왕 후반에서 신덕왕대에 특히 빈번하여 왕경은 이 시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 재난은 왕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는 중국과 발해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전체가 기온의 저하와 가뭄 등 기후의 변화로 인한 자연적 재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라의 왕경은 17만여호라는 거대한 규모의 대도시였음에 비하여 독자적인 생산활동은 크게 미흡하였다. 지방에서의 물자 유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자연재해의 타격은 극심하고 직접적이었다. 진성여왕 이후로 잦은 재해를 겪으며 누적되어온 왕경의 경제적 궁핍은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소진시켰던 것이다.

매해 되풀이 되던 기상이변은 경명왕대에 들어서면서 한결 잦아들었다. 5년만에 닥친 大風과 蝗蟲의 피해를 제외하면 더 이상의 재난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명왕 이후의 왕경은 경제적 위협에서 벗어나 잠시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이 무렵에 이르러 경명왕 7년과 8년에 연이어 후당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과 조공을 바친 것이나, 경애왕이 백좌강회를 열고 禪僧 3백명에게 밥을 먹인다던가, 왕실 가족들과 함께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난 왕경인들은 생기를 잃었고 이미 왕경은 피폐하여 스스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4) 종교적 의존의 심화

고려와 수교를 맺은 경명왕 4년, 10월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진례로 육박해 온 견훤군의 위협에 왕전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왕전은 사신으로 온 아찬 金律에게 “신라 三寶는 丈六尊像과 九層塔, 聖帶라고 하는데, 불상과 탑은 있는 줄 알겠으나, 성대는 지금도 있느냐”고 물었다. 김율은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와 이 말을 전하니 왕이 群臣들에게 물었으나 역시 알지 못하였다.⁵⁷⁾ 흥미로운 것은 신라의 국왕과 신하

57) 『三國史記』 권12, 景明王 5년 정원조.

들이 신라 삼보의 하나라는 聖帶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이 구십이 넘은 황룡사 노승의 도움으로 진평대왕이 착용하던 것으로 南庫에 전하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창고를 열었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날짜를 택하여 제사를 지낸 후에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장육존상은 호국불교의 상징이며, 황룡사구층탑 또한 호국의 영탑이다. 특히 진평왕의 성대는 신라 성골왕의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보물이다. 三寶란 7세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정신적 구심점을 마련해준 神物인 셈이다. 변방의 왕건이 알고 있으리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왕실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왕실의 종교적 권위를 강조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경문왕가 왕실이 삼보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오직 황룡사의 노승만이 성대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미 신라왕실에서는 잊혀진 유물이 된 것이라 하겠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성대의 존재가 은밀히 감추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⁵⁸⁾

경명왕은 삼보와 성대의 존재를 알고 이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다시 찾은 성대를 왕건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신라왕실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후로 고려와의 관계가 호전되고 천재지변과 재난이 잦아드는 등 왕경이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을 신라왕실은 삼보와 호국신의 가호라고 믿었음직하다. 박씨왕실에서 다시 종교적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경애왕대에 이르면 경문왕가 왕실에서 보이던 종교적 의존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애왕은 즉위한 다음 달인 10월에 神宮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⁵⁹⁾ 왕이 신궁에 친사한 것은 그가 종교적인 권위와 신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즉위한 바로 그해에 황룡사에 백좌강화를 설치하고 선

58) 설화적 성격의 일화라 해석은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중대왕실이 들어서면서 성골왕실의 종교적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진평왕의 성대를 남고에 깊이 감추어 두었고, 이 사실은 오직 황룡사에서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59) 『三國史記』 권12, 景哀王 원년 10월조.

승 300명을 먹이고 行齋과 불공을 한 것이나⁶⁰⁾ 927년 포석정에서 종교적인 의례로 짐작되는 연회를 베푼 것⁶¹⁾ 등의 행사는 모두 경애왕의 종교적 성향을 짐작케 하는 기록들이다. 일찍이 경문왕가 왕실이 추구하였다가 신라의 몰락을 가져온 종교적 권위에 대한 의존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⁶²⁾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겸이 애써 추진하였던 개혁은 경애왕대에 이르러 상실되었다. 외교에서 드러나는 경애왕의 무모한 자신감은 바로 이러한 神들의 도움을 믿었던 까닭은 아니었을까. 그가 견훤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면서도 방어에 필요한 대책과 군사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대신에 포석정에서 신들의 가호를 비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경애왕의 실책이라 하겠다. 결국 경애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스스로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었다.

5. 맺음말

신라의 멸망이란 궁극적으로는 쇠약해진 신라가 강성해진 고려에게 병합된 것이다. 그럼에도 멸망의 원인을 다시 새겨보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가의 몰락과정에서 그 시대의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갔던 지배층이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또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종래 이 시기 신라의 지배층은 흔히 무능과 실정으로 멸망을 초래한 부도덕하고 무기력한 집단으로 여겨져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하였으며, 몰락해가는 국가의 운명에 대해 대응하는 신라인의 주체적인 모습은 간과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나말여초의 분열과 통일의 과정은 역사와 사회의 큰 흐름

60) 『三國遺事』 권2, 景哀王. 여기에서는 백좌강화가 경애왕이 즉위하던 동광 2년(924) 갑신 2월 19일에 열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경애왕의 즉위는 경명왕 8년(924) 8월이라서 차이가 있다. 고려사의 기록도 삼국사기와 같아서 삼국유사의 착오로 보인다.

61) 姜敦求, 『鮑石亭의 종교사적 이해』, 『韓國思想史學』 4·5합집, 1993.

62) 이기동은 “그들이 종교적 의례에 집착한 것도 이전의 김씨 왕들과 닮은 점이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李基東,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新羅文化』 27, 2006, 17~18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라의 몰락 과정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너져 가는 국가의 운명 속에서 신라인들이 보여줬던 모색과 대응의 양상일 것이다.

신덕왕 경희는 진성여왕 이후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예겸의 의자가 되어 현강왕녀와 혼인하고 예겸세력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는 자신의 역량으로 왕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왕권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왕실과 구별되는 박씨왕실임을 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왕실은 경문왕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진성여왕이 위흥에게 의존함으로써 약화되기 시작한 국왕의 권위는 이후 예겸에게 의존한 효공왕대에 이르러 더욱 약화되었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성립한 고려와 후백제의 성장으로 지방사회에서의 전통적 권위마저 상실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박씨왕실이 취한 것은 친고려 반후백제의 외교정책이었으나 고려에의 지나친 의존은 삼국의 정립을 깨트리고 후백제의 침공을 불러들임으로써 경애왕이 살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신라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에 의한 국난의 극복을 포기한 것은 신라 멸망의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왕경의 쇠퇴는 연이어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기 생산기반이 취약하였던 왕경이 쉽게 경제적 궁핍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효공왕과 신덕왕대에는 특히 기후의 이변이 해마다 계속되어 왕경인들은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생기를 상실한 왕경인들은 호국신과 신물의 가호를 바라는 종교적 의존에 젖어들게 되었으며 경애왕은 神宮 친사와 백좌강회 등 종교적 행사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판단과 대응을 방해하고 무모한 외교정책에 나서게 함으로써 견훤의 진입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애왕의 살해는 박씨왕실의 종말인 동시에 신라의 실질적인 멸망이었다. 견훤의 가혹한 폭력에 노출된 왕경인들은 자구의 방책을 모색하였고 마침내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 주요어: 박씨왕가,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 신라의 멸망.

참고문헌

- 姜敦求, 「鮑石亭의 종교사적 이해」, 『韓國思想史學』 4·5합집, 1993.
- 권덕영, 「신라하대 박씨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 權英五,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大丘史學』 76, 大丘史學會, 2004.
- 金志垠, 「新羅 景文王의 王權強化政策」, 『경주사학』 21, 경주사학회, 2002.
- 金昌謙, 「新羅 下代 孝恭王의 卽位와 非眞骨王의 王位繼承」, 『史學研究』 58·59합집, 韓國史學會, 1999.
- 金昌謙,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遺詔」, 『白山學報』 56, 2001.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경인문화사, 2003.
- 文暻鉉, 「新羅 朴氏의 骨品에 대하여」, 『歷史教育論集』 13·14합집, 1990.
- 宋銀日, 「신라하대 憲康王의 친정 체제 구축과 魏弘」, 『新羅史學報』 5, 신라사학회, 2005.
- 申虎澈, 「新羅의 滅亡과 甄萱」, 『忠北史學』 2, 忠北史學會, 1989.
- 陰善赫, 「新羅 敬順王의 卽位와 高麗 歸附의 政治의 性格」, 『全南史學』 11, 全南史學會, 1997.
- 李基東, 「9세기 신라사 이해의 기본과제」, 『新羅文化』 26,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5.
- 李基東, 「新羅金入宅考」, 『震檀學報』 45, 1978.
- 李基東, 「新羅 衰亡史觀의 概要」, 『韓沽勛停年紀念論叢』, 1981.
- 李基東,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新羅文化』 2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 國家佛敎와 儒敎』, 1978.
- 李明植, 「新羅末 朴氏王代의 展開와 沒落」, 『대구사학』 83, 대구사학회, 2006.
- 李文基, 「新羅 孝恭王(曠)의 太子冊封과 王位繼承」, 『역사교육론집』 39집, 2007. 2.
-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화사, 1985.
- 李鍾恒, 「新羅의 下代에 있어서의 王種의 絶滅에 대하여」, 『法史學研究』 2, 한국법사학회, 1975.
- 全基雄, 「高麗初期의 新羅系勢力과 그 動向」, 『釜大史學』 17, 釜大史學會,

1993.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釜山史學』 16, 釜山史學會, 1989.

全基雄, 「新羅 下代의 花郎勢力」, 『新羅文化』 10·11합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4.

全基雄, 「신라말 효공왕대의 정치사회 변동」, 『新羅文化』 2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全基雄, 「新羅末期 政治社會의 動搖와 6頭品知識人」,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韓國古代史研究會, 신서원, 1994.

全基雄, 「眞聖女王代의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한국민족문화』 25,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全基雄, 「憲康王代의 정치사회와 ‘處容郎望海寺’條 실화」, 『新羅文化』 26,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5.

曹凡煥, 「新羅末 敬順王의 高麗 歸附」,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4.

曹凡煥,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 『歷史學報』 129집, 歷史學會, 1991.

曹凡煥, 「新羅末 花郎勢力과 王位繼承」, 『史學研究』 57집, 韓國史學會, 1999.

최의광,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新羅의 ‘國人’ 記事 檢討」, 『新羅文化』 25, 신라문화연구소, 2005.

黃善榮, 「新羅下代 景文王家의 王位繼承과 政治的 推移」, 『新羅文化』 27, 신라문화연구소, 2006.

Abstract

The Fall of the Silla and the Ruin of Baks' Royal Family

Jcon, Ki-Woong

King Sindeok(神德王), King Kyeongmyeong(景明王), and King Kyeongae(景哀王) who were on the throne during 912~927 sprang from the Baks. It is hard to regard the establishment of the Baks' Royal family as the foundation of new dynasty, because King Sindeok ascended the throne by force of Yegyeom(父兼). The Baks' Royal family failed to make clear the difference from Kyeongmoon's Royal family and to recovery its royal authority. The causes which the Baks' Royal family went to ruin were as follows. The first cause was a fall of its royal authority. The Royal family after Queen Jinseong(眞聖女王) fell from its royal authority, depending on a man of power and lost its traditional authority by the appearance of Goryeo and later Baekje. The second cause was a failure of its foreign policy. Its foreign policy of pro-Goryeo but anti-later Baekje cast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ree countries and brought about later Baekje's invasion which led to King Kyeongae's death. The third cause was a economic slump of its capital. The unusual changes in the weather which repeated every year under the reign of King Hyogong and King Sindeok were a heavy blow to its economy. The fourth cause was a excessive dependence on religion of the ruling class. They depended excessively on religion to pray to God for protection. King Kyeongae was absorbed in religious ceremonies such as his own worship at a shrine and a large Buddhist lecture meeting(百座講會). A excessive dependence on religion of the ruling class obstructed a realistic judgment and management. The main cause of the fall of Silla was the misrule of the Bak's royal family which didn't overcome a national crisis by its own ability but depended on a religion or the protection of Goryeo.

* Key Words: the Baks' Royal family, King Sindeok, King Kyeongmyeong, King Kyeongae, The fall of Silla.